



# 한국 원자력의 아·태 지역 선도 위치 확립

-RCA 제24차 국가대표자회의 개최 및 RCA 지역사무국 개소-

조 청 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이 학 범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사무관

**한** 국·중국·일본·인도 등 17개 RCA<sup>1)</sup> 회원국 국가 대표자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4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가 3월 25일~29일간 서울 과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1986년 제8차 회의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 이래 두 번째로 우리 나라에서 열리게 되었으며, RCA 17개 전체 회원국 모두가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 기간 중에는 지난 10여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한국에 설치기로 된 RCA 사무국의 개소식이 3월 27일 대전에서 개최되어 이번 서울 회의를 보다 의미 있게 하였다. 또한 RCA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강연회 및 패널 전시회도 함께 개최되어 「제2세대 RCA」(Second Generation of RCA)의

발전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되었다.

## 제24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

제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는 3월 25일 09:30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 Qian Jihui IAEA 사무차장, 17개 RCA 회원국 국가 대표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채영복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아·태 지역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과 RCA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에 설치되는 RCA 사무국의 출범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계획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IAEA 사무총장(Dr. Mohamed ElBaradei)은 RCA가 IAEA 회원국

간에 체결된 최초의 지역 협력 협정으로 농업·산업·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아·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올해 RCA 30주년을 맞아 RCA 사무국이 개소되고 30주년 기념 과학 포럼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고 제2세대 RCA를 준비하는 기틀이라고 평가하였다(대독).

29일까지 계속된 국가 대표자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부 조청원 원자력국장을 임기 1년의 의장으로 선출한 후, 2003~2004 RCA 사업 계획 및 규모, RCA 사무국 한국 개소 등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였다(결정 사항: <표 2>).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전체 회원국은 새로운 RCA 세대를 맞이하면서

1) RCA: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RCA 활동 제고를 위해 이번에 한국에 설치된 RCA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17개 회원국은 RCA의 미래 과제인 RCA의 주인 의식(Ownership) 제고, RCA 미래 비전 보고서, TCDC<sup>2)</sup>에서 ECDC<sup>3)</sup>로의 전환, 기업 등 최종 이용자의 참여, RRU(Regional Resource Unit)의 네트워크화, RCA 웹(Web) 구성 운영 등 제2세대 사업 방향에 대한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RCA 사무국이 성장되기를 기대하였다.

**RCA 사무국 개소**

RCA 사무국 개소식이 3월 27일 17:00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과학기술부 유희열 차관, IAEA 사무차장(Dr. Qian Jihui), 17개 RCA 회원국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소식에서 IAEA 사무차장은 한국 정부의 RCA 사무국 설치를 위한 지원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IAEA는 RCA 사무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에 설치되는 RCA 사무국은 원자력 분야에서는 최초로 유치된 국제 기구로서, 연간 600만 불에 달하는 RCA 사업의 기획·조

〈표 1〉 RCA 개요

명칭	원자력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 협력 협정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목적 및 체결 연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원자력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72년에 체결
회원국 (17개국)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몽고, 호주, 뉴질랜드, 태국

〈표 2〉 RCA 제24차 국가 대표자 회의 주요 의제 및 결정 내용

의 제	토의 및 결정 내용
RCA 2003~2004 사업 계획	- 농업·산업 등 주제 분야별 프로젝트에 대해 2001년 총회시 결정된 대로 확정 - 보건 분야: 사업 계획안을 인도네시아가 회원국과 협의, 조정
RCA 지역사무국 운영	- 시범 운영 기간(2년) 동안 「자문위원회」 운영 * 한국·호주·방글라데시·중국·인도·RCA 조정관으로 구성
국제 기구와의 협력	- RCA 조정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PCAP)」와 대기 오염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 -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과는 상호 중복없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완적 방안 고려
RCA 미래 이슈	- RCA 지역사무국이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RCA 미래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제25차 국가 대표자 회의시 보고 * RCA 주인 의식과 협력 증대 방안 * RCA 비전 보고서 * 회원국간 과학적 정보 교류 방안 등
RCA 2002 행사 계획	- 제31차 RCA 정기 총회: 2002.9.18. 오전(비엔나) - AFRA/ARCAL/RCA 3차 회의: 2002.9.19. 오후(비엔나)
차기 회의 개최지	- 2003.3. 파키스탄에서 제25차 회의 개최

정 및 유엔개발계획(UNDP)·세계 보건기구(WHO)·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 아·태 지역에 있어 원자력 국제 협력의 고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 RCA는 1972년 17개국이 비준 체결한 국제 협정에 설립되었으나, 그간 자체 사무국 조직이 없이 운영 되어 오다, 지난 2000년 3월 제22

2) TCDC: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개도국간 기술 협력)  
3) ECDC: 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개도국간 경제 협력)



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인도 뭄바이)시 한국이 유치를 제안함에 따라, 2001년 9월 제30차 RCA 정기총회(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 한국 유치가 최종 결정된 바 있다.

### RCA 설립 30주년 기념강연회 및 패널 전시회

올해는 RCA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회의 기간중 30주년 기념 강연회 및 패널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기념 강연회는 3월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인도 원자력연구소 특별자문관 Anand 박사,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장 Choudhury 박사,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상임이사 March 박사, 호주 원자력과학기술기구 Easey 박사, 한국 이병휘 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등이 특별 강연자로 초청되어, 지난 30여년간의 RCA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연자들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수용성(Public Acceptance) 제고와 RCA 활동의 목표 지향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RCA 사업 추진에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하였다.

전시회에서는 RCA가 그간 추진해 온 수자원 보호를 위한 방사성 동



현재 RCA는 새로운 세대(New 2nd Generation)를 맞아 회원국으로부터 RCA 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 설치된 RCA 사무국은 이런 회원국들의 높은 기대의 결과로서 향후 30여년을 이끌어 갈 기관차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소 추적자 기술, 식량 증산과 질병 퇴치에 기여한 방사선 기술 등 지역내·지역간 협력 사업 중 주요 성과를 패널로 전시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원자력병원도 원자력연수원의 아·태 지역 원자력 인력 양성 사업 성과와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식품 저장 신기술 등 자체 기술 개발 성과를 전시함으로써 원자력 기술 교류·수출 기반 확대를 도모하였다.

### 맺음말

현재 RCA는 새로운 세대(New 2nd Generation)를 맞아 회원국으로부터 RCA 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 설치된 RCA 사무국은 이런 회원국들의 높은 기대의 결과로서 향후 30여년을 이끌어 갈 기관차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원자력은 RCA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게 되었고, 아·태 지역 내 선도적 역할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역량도 높아졌다. 원자력연구소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가 2002년 4월 17일 개관되고, 원자력병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 원자력안전기술원 훈련센터,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교육원 등 국내 주요 원자력 관련 기관에 국제적 수준의 교육 훈련 시설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강화된 우리 나라의 국제 원자력 리더십을 토대로 RCA에 대한 우리 나라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감으로써 아·태 지역 내 우리 나라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해 나가고, 원자력 기술 수출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